



조건 제793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음력 8월 10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박승원 참승원지방정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TX 광주 송정~목포, 빠른 기간내 완공”

### 정청래,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서 예산투입 역할

### 호남선 횡수 적고 느려...객차량 운행 확대도 검토

### 김영록 도지사, 의대 등 정책·법률·국고사업 요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KTX 호남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광주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구간 KTX 개선 사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전남도예산정책협의회'에서 “21세기 대명천지에 KTX 속도가 경부선과 호남선 이 다르다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같은 KTX를 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와 목포로 갈 때 속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 KTX 열차 양과 인원이 다르다는 것이 과연 가망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부선 KTX가 평균 시속 234km, 최고 시속 300km인데 광주송정에서 목포까지 구간은 평균 시속이 188km, 최고 시속이 230km 속도밖에 낼 수 없다”며 “왜 그런가 했더니 KTX를 처음에 건설할 때 직선화 작업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 (사업에) 마중표를 찍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우선 예산을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국립 전남의대 (가칭) 신설을 언급하며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의대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에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며 “지자체에서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AI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예산이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서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남 속원사업인 여수 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사업,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등을 거론하며 “모두 전남의 미래를 여는 투자이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5곡 3북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광주와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AI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전남이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었던 것처럼 국가 균형발전에서도 성지가 되도록 민주당이 당력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예산이라는 것은 국정의 방향이고 또 철학이 담겨 있는 강력한 메시지

지”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호남에게 표나게 보답할 때라는 점을 저희 당 지도부에서도 아주 각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호남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심장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였다고들 하는데 ‘국가는 호남의 경제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며 “이제 이제 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 국가가 호남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을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남에 대한 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국정과제를 통해 전남의 에너지 미래 도시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전남을 아시아-태평양 해상 품력의 허브로 완성하고, 고품 나로우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이소영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박정림 기자 holbul@gwangnam.co.kr

## 순천에 코스트코 들어선다

### (주)코스트코코리아·전남도·순천시·광양청 투자협약

### 2028년 선월지구 개점 목표...연간 1300만명 유입

전남도가 광주·전남 최초로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 유치에 성공했다. 30일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주)코스트코코리아,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가 선월지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노관규 순천시시장,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트코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지구 부지(4만6000㎡)에 총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 개점 목표로 매장 건립을 추진한다. 개점 시 광주·전남·경남·제주권 소비층을 아우르는 연간 1300만명 이상의 생활인구 유입과 25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입점 절차가 본격화됐고, 이후 코스트코 미국 본사 회장이 순천점 신설을 최종 승인했다.

순천시는 이번 유치를 ‘지역 최대 수일사업’으로 꼽고, 과거 무산된 사례를 교훈 삼아 코스트코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전략적인 협상을 벌였다. 또 순천민국가정원박람회 등으로 순천을 찾는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도해 지역 관광산업과 상권을 연계해 남해안권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형 유통시설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농특산물·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전통시장 협력사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노관규 시장은 “코스트코는 단순한 쇼핑시설을 넘어 광역 소비권을 형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사는 “코스트코 입점은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투자”라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남해안 상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림 기자 holbul@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

## 취업난 속 ‘단비’...GGM 구직자 몰려

### 27명 채용에 1000여명 접수...36.7대 1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듯 광주글로벌보트 터스(GGM)가 실시한 하반기 공채에 1000여명의 구직자가 몰렸다.

GGM은 지난 28일 마감한 하반기 기술직 및 일반직 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 결과 27명 모집에 총 992명이 지원, 평균 3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직은 22명 모집에 860명이 지원해 평균 39.1대 1, 일반직은 5명 모집에 132명이 접수해 평균 2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GGM은 캐스퍼의 국내외 주문 쇄도 및 결원 보충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올해 2차 공채 지원을 받았다.

GGM은 이번 공채 과정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을 채택하고 채용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I 역량 검사 및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치른 뒤 건강검진을 거쳐 1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GGM 관계자는 “캐스퍼의 국내외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GGM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가 쌓이면서 향후 주야간 2교대 가동도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300여 명의 추가 인력 등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부지 주택개발 ‘먹구름’

###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도 시공권 포기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주택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다음 달 추상복합 착공과 분양을 목전에 두고 공동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는 대우건설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주택개발 시공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친 결과 부결됐다며 전방 구두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유일하게 남은 대우건설마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포스코이앤씨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주택개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29.8만㎡ 부지에 총 4315가구의 주거 시설과

업무·상업시설, 특급호텔, 역사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현대백화점 그룹이 더현대 서울 1.5배 크기의 ‘더현대 광주’를 건립하고, 추상복합 시설은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피에프브이가 ‘올 뉴 챔피언스시티’라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챔피언스시티개발사는 지난 2020년 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6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대규모 주택개발 승인을 받았다. 10월중 착공,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